

이-팔... 멈춰라! 제발 멈춰라

교황·오바마·반기문 등 국제사회 인사들 즉시 휴전 촉구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휴전이 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속출과 이스라엘 측 인명 피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벌어지는 교전의 종단을 호소했다.

교황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중기도를 집전하면서 “멈춰라. 제발 멈춰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간구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교황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자고 당부하면서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평화 속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유엔이 제안한 24시간 휴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정전 연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휴전을 멈췄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4시간 휴전 연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 27일(현지시간) 한 어린이가 빈 플라스틱통과 페트병에 마실 물을 채우기 위해 마을 공동 수도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의도적으로 학교를 표적으로 삼은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하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영국 BBC 중동특파원을 지낸 존도니슨은 25일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경찰 외신대변인을 인용,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의 빌미가 된 유대인 10대 3명 납치피살사건이 하마스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연계세력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마스 지도부가 사건에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면 이는 하마스 소행이었던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잇단 악재’ 말레이시아항공 개명 검토

항공기 실종에 이어 피격까지 최근 수개월 사이에 두 건의 초대형 악재를 겪은 말레이시아항공의 개명이 검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말레이시아항공의 안전 개선 방안과 함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국부펀드인 ‘카자나 나소날’이 지분의 약 69%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도 정부 개편안에 회사명을 교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관광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는 나라 이름이 들어간 항공사가 필요하며 이름을 바꾸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항공은 이미 지난 3년간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고 주가는 올 초에 비해 약 30% 떨어졌다.

지난 3월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이 승객 239명을 태우고 가다 실종된 데 이어 이달 MH17편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되며 항공권 판매가 타격을 받았다.

항공사 측은 일시적인 부진으로 지난 24일까지 항공권 예매를 취소한 사례는 소수라고 설명하지만 기업분석가들은 연이은 사건·사고를 겪은 말레이시아항공이 경영 위기를 버텨낼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경영 부진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항공사의 일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공기 유지·수리 부분을 분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日, 아세안과 국방장관 회의 추진

일본이 올해 11월 미얀마에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방장관 회의에 맞춰 일본과 아세안의 국방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는 아베 총리가 작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했으며 일본 방위성은 재해구호, 인도적 지원 등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산케이신문은 다케다 료타 방위 부대신이 28일 의장국인 미얀마를 방문, 국방부 간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일본·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중국 견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라서 국방장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 형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러, 우크라 공격 증거” 美 위성사진 공개

우크라 방향 로켓포 발사 등 4장...유럽 동맹국 ‘러 제재’ 설득 의도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공개, 러시아에 개입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미국은 이날 러시아 영내의 로켓포와 곡사포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발사된 증거, 우크라이나 정부군 진지 주변에 생긴 포탄 구덩이들, 반군이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러시아가 공급한 중포를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위성사진 4장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제공, 국무부를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촬영 시점은 말레이시아 항공사 여객기가 격추된 이후인

지난 21일과 26일 사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러시아가 반군 지원을 위해 국경 너머에서 야포를 발사했으며 조만간 반군에 강력한 다연장 로켓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비난한 바 있으나 위성사진 공개 전까지는 그 근거를 “정 보당국이 입수한 첩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중상모략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버티고 있다.

위성 사진 공개는 러시아의 책임을 밝히며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설득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연합뉴스

급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러시아 군부대에서만 사용하는 자주 곡사포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진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은 사진도 이날 공개된 4장의 사진 속에 포함돼 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가 즉시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분쟁의 강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이 국경 초소 두 곳을 시찰토록 초청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OSCE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승절’ 춤추는 평양 주민들 북한이 ‘전승절’로 선전하는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현지시간) 평양 거리에서 주민들이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북 잠수함 78척 보유 ‘세계 1위’

미국보다 6척 많아...한국 14척

북한이 모두 78척의 잠수함 또는 잠수정을 보유, 72척인 미국을 앞서는 보유 척수 기준으로 세계 1위라는 집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27일(현지시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자료를 재공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인사이드의 집계에서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69척), 러시아(63척), 이란(31척)이 잠수함을 많이 가진 나라로 지목됐다.

한국과 일본의 보유 잠수함 수는 각각 14척과 16척이었다.

하지만, 이 집계는 크기나 운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수치

집계다.

워싱턴의 한 군사 소식통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수함들은 힘의 균형이라는 전략적 목적으로 운용되지만 북한 잠수함은 주로 한국에 특수요원을 침투시키거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운용된다”며 “숫자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안보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군사전문매체 글로벌시큐리티는 북한의 작년 기준 잠수함 보유량을 78척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소 8척으로 알려진 침투용 반잠수정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 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주중/주말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로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3